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미래전략연구부 김동영 연구위원  
(063-280-7174, 010-4121-1210)
- **담당실장**: 연구실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 
(063-280-7111)

**보도시점** : 2018년 4월 23일(월)부터

## 지역개발수요, 상주인구에서 체류인구로 전환해야

**전라북도 체류인구 227만명에서 230만명에 달해  
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한 관광체류인구는 전국 여섯 번째로 높아**

- 상주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전라북도 체류인구는 최소 227만명에서 최대 230만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『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』이라는 이슈브리핑(165호)을 통해 3개의 시나리오별로 체류인구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.
-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른 전라북도 체류인구는 관광객 총량에 계획일 집중률과 동시 체재율을 적용한 1일 체류인구를 추정하고 여기에 거주인구를 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
- 그 결과 전라북도 1일 체류인구는 412,819명에 이르며 거주인구를 합한 체류인구의 합은 2,267,456명에 달했다.
-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따른 전라북도 체류인구는 정주인구 1인당 연간소비액을 관광객의 소비액과 비교하여 정주인구 1인당 관광객 수를 산출한 후 정주인구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

- 정주민구 1인당 연간소비액(1545만원)은 내국인 숙박여행객 60명, 내국인 당일여행객 166명, 외국인 관광객 8명과 맞먹었다.
- 정주민구 1인당 연간소비액을 전라북도 관광객 수로 환산하면 451,620명에 해당하고 거주인구를 합한 체류인구는 2,306,227명으로 추정된다.
- 세 번째 시나리오에 따른 전라북도 체류인구는 거주인구에 관광객 수를 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
- 이 결과 전라북도는 거주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한 관광체류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, 2017년 현재 관광체류인구는 약 3698만명으로 전국에서 여섯번째로 높은 수치다.
- 김동영(연구책임) 박사는 “국토종합계획, 지역개발, 예비타당성조사, 교부세산정 등 국가예산사업을 결정할 때 실질적인 지역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주인구대신 체류인구지표를 활용해야한다”고 주장했다.
-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체류인구 증가는 결국 체류관광객확대에 있다고 보고 향후 『관광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전북의 문화·관광전략』을 후속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.